

# 朱子の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

洪性敏\*\*

## <목 차>

1. 서론
2. 친소성에 따른 차등적 배려
3. 배려의 확장과 인간의 역할
4. 생명에 대한 관찰과 배려
5. 결론

## 1. 서론

생태윤리와 동물윤리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윤리학의 테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윤리학이 인간 사회 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두 테마는 윤리학의 범위를 동물과 식물, 나아가 광범위한 생태환경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제 윤리학은 인간에 대한 인간을 위한 선의 탐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모든 생명체를 위한 선의 추구로 영역이 넓혀진 것이다.

생태윤리와 동물윤리는 기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며 혹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sup>1)</sup>, 어떤 면에서는 양자가 공히 합의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 숙명여대 리더십교양교육원 조교수.

1) 동물윤리와 환경윤리가 대립하는 지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명식의 <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환경철학》 제15권, 한국환경철학회, 2013)을 참조할 것.

모든 생명체를 인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반성하고 자연 안에서 인간의 지위를 강등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생태윤리의 계파 중 특히 심층생태윤리(deep ecology)는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생명 평등주의(biotic egalitarianism)를 역설한다. 심층생태윤리의 선구자 내스(A. Naess, 1912-2009)는 지구를 개별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 맺는 전체적 터전'(relational total field)이라고 정의하고,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이 관계적 터전 안에서 평등하게 관계 맺으면서 공생한다고 주장한다. 내스에 따르면, 이 평등한 관계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살고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가 누구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sup>2)</sup> 그래서 내스는 인간에게는 자연을 지배하거나 이용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sup>3)</sup>

동물윤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같은 입장이다. 유명한 동물해방론자 싱어(P. Singer)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을 제시하여 동물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촉구한다. 그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따라 윤리적 고려의 기준을 감응력(sentience,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전제하고, 감응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동물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에 따르면 윤리란 본질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판단, 불편부당한 관망자의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동물의 고통을 마땅히 윤리학적 연구의 범주에 넣고 인간의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동물에 대하여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racism)나 남녀차별주의(sexism)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논증한다.<sup>4)</sup>

2) Arne Naess, "Equality, Sameness, and Rights"(edited by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1995), 223쪽.

3) 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edited by Michael E. Zimmerman,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 to Radical Ec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196-200쪽.

4) 피터 싱어, 김성동 황경식 옮김, 《실천윤리학》(철학과 현실사, 2003), 제1장, 제2장, 제3장을 참조할 것.

내스와 싱어 두 사람은 모두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른 존재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스는 감성적이고 미학적인 반면 싱어는 이성적이고 공리주의적이다- 인간우월주의의 편협한 시각을 해체하고 인간의 윤리적 관심을 다른 종의 생명체에게로 넓게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그 실천 지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내스가 예로 든 것처럼 우리는 과연 죽어가는 파리를 보고 강한 공감(empathy)을 느끼고 그 파리의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sup>5)</sup> 또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말(馬)과 동료시민에게 동등하게 식량을 공급하여야 하는가?<sup>6)</sup>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배려하라는 이들의 실천 규범은 우리의 상식에 잘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조금만 따져본다면,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는 말이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실천을 필함하지는 않으며, 다른 생명체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것이 그 생명체를 온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상의 특성과 관계의 원근법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봉착하게 될 문제는 이러한 상식적 태도로 인해 보편타당한 관점이 폐기되고 사적 편당과 종적 이기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버리고 다시 인간중심주의로 귀환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심려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내스가 주장하는 ‘大我의 실현’(Self-Realization)과 싱어가 제창하는 ‘불편부당한 이상적 관망자’(impartial ideal spectator)를 우리의 윤리적 이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5) 안옥선, <생태적 삶의 태도로서 ‘동일시’와 ‘동체자비’>, 《불교와 문화》제1권,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2007.에서 재인용

6) 김명식, 앞의 글, 19쪽.

우리는 朱子(이름은 熹, 1130-1200)의 윤리학으로부터 이 딜레마의 해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자는 모든 생명체의 삶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도 대상의 특성과 親疎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자는 理一分殊라는 존재론의 원리와 參贊化育이라는 실천윤리의 지침을 통해 평등한 고려와 차등적 배려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의 윤리학은 심층생태윤리와 동물해방론의 유의미한 메시지와 만나면서도 그것의 단점을 지양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參贊化育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통해, 다른 생명체에도 관심을 확장시켜가는 실천 윤리적 태도를 확인해볼 것이다. 이어서 주자의 리일분수설을 통해 동등하면서도 차등적인 배려의 원칙을 살펴보고 주자가 지향하는 윤리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등적 배려의 궁극적 목적인 各得其所, 즉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suum cuique)을 확인하고 그것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格物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 2. 친소성에 따른 차등적 배려

주자는 우리가 모든 존재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화한다. 그에 따르면 天地는 만물을 살려주는 마음(生物之心)을 그 본질로 삼고 있고, 천지의 생산물인 만물은 천지의 마음을 물려받아 '살고자 하는 의지'(生意)를 자기 본질로 삼고 있다.<sup>7)</sup> 이것은 주자 철학에서 모든 존재 -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의 생명활동<sup>8)</sup>이 형이상학적으로 정당한 가치를 부여

7) 《朱熹集》67-23(3542쪽) <仁說>, 天地以生物爲心者也。而人物之生，又各得夫天地之心以爲心者也。

8) 이승환 교수는 존재자의 생명활동을 인지활동과 결부시켜 해석하면서, 생명체의 知覺이 생명활동의 본질이라고 규정한다. 생명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좋은 예라고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모든 존재의 생명활동은 그 자체 천지의 목적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쉽게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에게 더 잘 대우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상식적 인륜성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의 아이와 저 소 한 마리의 생명이 똑같이 소중한하므로 그 둘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뜻 그렇게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의 친소성과 일상적 인륜성을 부정하고 일률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 실천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이러한 문제가 비단 오늘날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자가 보기에 불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자는 불교의 '인연에 얽매임 없는 사랑'(無緣慈悲)이 바로 친소성과 인륜성을 무시하고 모든 존재를 평등이념으로 획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禪家에서는 부자형제가 서로 친애하는 것을 '인연에 얽매인 사랑'(有緣之慈)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호랑이·이리와 내가 同類가 아닌데도 도리어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내 몸을 바쳐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인연에 얽매임 없는 사랑'(無緣之慈)이며 참된 사랑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불교는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절대 자유의 경지와 차별 없는 자비를 추

---

할 수 있다.(이승환, <주자의 공동체적 생태윤리>, 《간재학총서》제5집, 2006.242-246쪽 참조)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그의 해석은 상어의 '감응력'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교차적이고 확장적인 논의의 가능성이 넓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곧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자와 상어는 실천적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9) 김명식은 동물해방론이 친소관계를 부정하고 획일적 평등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없는 윤리이론이라고 비판한다.(김명식, 앞의 글, 18-20쪽)

10) 《朱子語類》권126. 禪家以父子兄弟相親愛處爲有緣之慈. 如虎狼與我非類, 我卻有愛及他, 如以身飼虎. 便是無緣之慈, 以此爲眞慈.

구한다. 혈연적 근친성도 불교에는 자유와 자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불교는 혈연적 근친성마저 해탈하여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자유의 경지이며 자비의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자가 보기에, 인연을 벗어나 만물을 동등하게 배려하라는 불교의 이념은 실천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만물에 대해 똑같이 윤리적 배려를 할 수 있는가? 혈연적 근친성을 억지로 부정하고 평등이라는 추상적 이념으로 현실을 획일화하는 것은 자연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못한 것이라고 주자는 비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물의 차별성을 고수하면서 혈연과 종족에 대한 이기적 편애와 배타적 배려가 그대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같은면서도 다른 배려’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주자의 理一分殊說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리일분수설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전체적 동질성(理一)을 가지면서도 개별적 특수성(分殊)을 유지한다는 주자 존재론의 핵심 용어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자연 안에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론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일분수설은 비단 존재론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혹은 자연 안에서)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윤리적 배려 대상으로 설정하면서도 관계의 원근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 즉 ‘같은면서도 다른 배려’를 하는 실천적 규범도 리일분수설로부터 제시된다. 어쩌면 리일분수는 존재론이라기보다 실천윤리에 그 본래 위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회하기로 하자. 程頤의 고제 楊時는 張載의 《西銘》에 나타난 우주적 가족주의를 목자의 겸애설과 혼동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재의 기일원론은 건곤 아래 모든 만물이 한 몸으로 짜여 있다는 전일적 존재론(holistic ontology)을 보여주고 있고, <서명>의 가족주의는 만물에 대해 가족적인 사랑을 평등하게 베푸라는 평등주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이는 양시를 나무라면서 《서명》의 핵심 내용은 理一分殊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理一은 만물에 대한 포괄적 사랑으로

서 仁이고 分殊는 관계의 원근에 입각한 차별적 대우로서 義이다.<sup>11)</sup> 훗날 양시는 정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서명》은 리일분수이다. 그 理一을 아는 것은 仁을 실천하는 방안이고 분수를 아는 것은 義를 실행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分殊라는 것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가족을 먼저 친애하고 그 다음 백성을 사랑하라. 백성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생명체를 사랑하라”(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 현실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배려하는 데도 차등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이가 묻기를 “만일 그렇다면 이는 결국 體用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用은 體에서 분리된 적이 없다. 사람의 신체로 말하자면, 사지백해가 한 몸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體이다. 그런데 그 用處를 보면 머리에 신발을 쓸 수 없고 발에 갓을 신을 수 없다. 그러니 동등성의 體에 대해서 말해도 차별성의 用은 이미 그 안에 다 담겨있는 것이다.”<sup>12)</sup>

정리와 양시에 따르면, 理一과 分殊는 體用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理一의 측면에서 모든 존재를 널리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에는 차별과 차등이 당연히 있다. 만물에 대한 포괄적 사랑(仁)은 근본 이념(體)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用)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의 원근에 부합하는 차별화(義)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차등의 순서는 가족(親), 타인(民), 동식물(物)로 배열된다. 가족에 대한 배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깊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사랑은 동물에 대한 사랑보다 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관계의 원근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타 존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점차 희박해져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理

11) 《二程文集》9-20, <答楊時論西銘>, 書前所寄史論十篇, 其意甚正. 纔一觀便爲人借去俟, 更子細看西銘之論則未然. 橫渠立言, 誠有過者, 乃在正蒙西銘之爲書, 推理以存義, 擴前聖所未發, 與孟子性善養氣之論同功(二者亦前聖所未發)豈墨氏之比哉! 西銘明理一而分殊, 墨氏則二本而無殊(老幼及人理一也, 愛無差等本二也.) 分殊之蔽, 私勝而失仁, 無分之罪, 兼愛而無義, 分立而推理一以止私勝之流, 仁之方也. 無別而迷兼愛, 至於無父之極義之賊也. 子比而同之過矣. 且謂言體而不及用, 彼欲使人推而行之本爲用也, 反謂不及不亦異乎?

12) 楊時, 《龜山集》<龜山語錄>, 西銘理一而分殊. 知其理一, 所以爲仁, 知其分殊, 所以爲義, 所謂分殊, 猶孟子言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其分不同, 故所施不能無差等耳. 或曰: 如是, 則體用果離而爲二矣. 曰: 用未嘗離體也. 以人觀之, 四肢百骸具於一身者, 體也. 至其用處, 則首不可以加履, 足不可以納冠. 蓋即體而言, 而分已在其中矣.

—의 이념 하에서 모든 대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포괄적 사랑의 이념 하에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주자는 이들의 리일분수설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정밀한 논리로 리일분수설의 실천윤리학적 함의를 해명한다. 그는 리일분수의 논리 아래 보편적인 평등의 이념과 현실적인 차등의 배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시키면서 <西銘>의 공동체 윤리학을 완성하고 있다.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는 것은 생명을 가진 부류들 중 그렇지 않은 존재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理—이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삶에서 혈연적 관계의 부류끼리 각자 자기 부모를 친애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마련이니, 그 부류에 따라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궁극적 원리는 하나로 통괄하면서도 실상에서는 만 가지로 다르니, 비록 친하가 한 집안이고 세계가 한 사람이라고 해도 겸애의 폐해로 빠지지 않는다. 또한 실상에서는 만 가지로 달라도 궁극적 원리가 하나로 관통하고 있으니, 친소에 따라 감정이 다르고 귀천에 따라 등급이 다르더라도 爲我主義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서명의 大旨이다.<sup>13)</sup>

주자는 兼愛로 대변되는 평등주의와 爲我로 대표되는 혈연 이기주의를 양극단에 두고 그 사이에서 평등의 원리와 차등의 배려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모든 존재에 대한 포괄적 사랑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타인, 동물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배려해나가는 윤리 규범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불교의 무차별적 평등주의를 비판하면서 적절한 차등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3. 배려의 확장과 인간의 역할

그러나 친근한 관계에 있는 이를 먼저 그리고 깊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자의

13) 朱子, 《西銘解》.



주장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생명체를 널리 사랑해야 한다는 이념은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 아닐까? 理一의 이념은 다분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관계가 먼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산출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다. 주자는 어떻게 동식물과 같은 다른 종의 생명체를 배려하라고 하는 것일까? 달리 말해 주자에게 있어 생태윤리나 동물윤리는 어떤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주자의 말을 들어보자.

성인은 “가족을 먼저 친애하고 그 다음 백성을 사랑하라. 백성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생명체를 사랑하라”(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불교도)은 가족을 친애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생(백성)을 먼저 사랑하고 동물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한다. (성인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먹고 그것을 절도에 맞게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것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한다.”는 것이나 “(동물의 가임기인) 仲春의 달에는 회생으로 암컷을 쓰지 않으며, 새끼집승은 잡지 않고 부화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태아로 있는 것은 죽이지 않고 새의 둥지를 엮지 않는다.”는 것 등이니, 성인의 동물 사랑은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러나 저들(불교도)은 고기도 먹지 않고 매운 채소도 먹지 않으면서 제 몸을 던져 호랑이의 밥으로 내어준단 말인가? 그게 도대체 뭐냐?<sup>14)</sup>

여기에서 주자의 동물윤리를 찾아볼 수 있다. 주자가 보기에 불교에서는 親親, 仁民, 愛物이라는 차등적 사랑의 순서를 무시하고 분별없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동물의 삶에 대한 그들의 처사 역시 捨身飼虎라는 비상식적 행위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나친 평등화이고 양적 평등만 중시하는 획일화이다. 주자는 이러한 획일적 평등을 지양하고 동물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존해주는 것이 적절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주자의 말에 따르면, 유가적 성인은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문명을 위해 동물의 생애를 함부로 침해하는 일을

14) 《朱子語類》126:26 聖人“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他卻不親親, 而刻地要仁民愛物. 愛物時, 也則是食之有時, 用之有節; 見生不忍見死, 聞聲不忍食肉; 如仲春之月, 犧牲無用牝, 不麇, 不卵, 不殺胎, 不覆巢之類, 如此而已. 他則不食肉, 不茹葷, 以至投身施虎? 此是何理?

금기시하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동물들이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번성할 수 있게끔 그들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주자가 생각한 동물윤리였으며, 理一의 포괄적 사랑을 동물에게 실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의 분별없는 헌신이 양적 형식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주자는 만물이 저마다의 생을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질적 실제적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차등적 배려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차등적 배려는 단지 관계의 친소성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인 것만이 아니라, 만물 각자의 본성과 삶의 방식에 맞게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보다 깊이 고찰하기 위해 參贊化育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용》에서는 이 점을 參贊化育으로 규정하고 그 참찬화육의 필수조건으로서 ‘至誠’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주자는 誠의 태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고찰에 따르면, 주자의 誠에는 두 가지의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나는 모든 생명체의 삶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그들을 돌보는 윤리적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저마다 다른 생명체를 차등적으로 배려하는 윤리적 실천 행위이다. 《중용》제22장<sup>15)</sup>에 따르면, 至誠은 盡性인데, 盡性은 자기의 본성(생명의지)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만 아니라 타인의 본성과 나아가 동식물들의 본성까지 완전히 실현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盡性은 盡人之性和 盡物之性を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실현시킨다(盡)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그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 자기 본성 안에 있는 仁의 德을 가족에게는 베풀면서 宗族에게는 베풀지 않는다거나 종족에게는 베풀면서 鄉黨에는 베풀지 않는다거나 향당에는 베풀면서 천하국가에는 베풀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다하지 않은 것이다. …… 타인의 삶을 완전히 실현시켜준다(盡人)는 것은, 사람마다 인품이 어질거나 비루하거나 명

15) 《中庸》제22장,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이 짧거나 길거나 하는 차이가 있어도 모두를 온전하게 배려하여 저마다 최적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만물의 생을 완전히 실현시켜 준다는 것은 鳥獸蟲魚이건 草木動植이건 간에 모두를 온전하게 배려하여 저마다 가장 적합한 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盡性, 盡人, 盡物이란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sup>16)</sup>

주자에 따르면 至誠은 필연적으로 向外的 확산을 함축한다. 만일 세계의 모든 존재가 동일한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할 때 마땅히 타자의 삶의 욕구도 함께 실현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자는 주장한다. ‘완전히 실현시켜준다’(盡)는 것에는 자기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만 아니라 타자의 욕구까지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것만 다하는 것(盡)은 반에도 못 미치는 다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至誠이란 누구의 생명 의지이건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자의 본성에 맞게 모든 존재의 삶을 완성시켜 주려는 의지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주자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하찮은 미물의 생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물 저마다의 생명 원리를 상세히 살펴 그것들 각자의 생명의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천지의 목적의지에 부합하는 윤리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윤리적 의무는 모든 생명의 보호와 번성을 돕는 일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자는 《중용》의 “誠이란 자기의 삶을 성취하는 것만 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성취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誠者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라는 구절에 대해 “誠은 자신의 삶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삶을 성취할 수 있으면 타자의 삶에도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7)</sup>

誠과 盡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살펴보자면, 주자의 생각은 내스가 말하는

16) 《朱子語類》 64:50 問: “至誠盡性, 盡人, 盡物如何是‘盡’?” 曰: “性便是仁義禮智. ‘盡’云者, 無所往而不盡也. 盡於此不盡於彼, 非盡也; 盡於外不盡於內, 非盡也. 盡得這一件, 那一件不盡, 不謂之盡; 盡得頭, 不盡得尾, 不謂之盡. 如性中之仁, 施之一家, 而不能施之宗族; 施之宗族, 不能施之鄉黨; 施之鄉黨, 不能施之國家天下, 皆是不盡. 至於盡禮, 盡義, 盡智, 亦如此. 至於盡人, 則凡或仁或鄙, 或夭或壽, 皆有以處之, 使之各得其所. 至於盡物, 則鳥獸蟲魚, 草木動植, 皆有以處之, 使之各得其宜. 盡性盡人盡物, 大概如此.”

17) 《중용장구》제 25장, 誠雖所以成己, 然既有以自成, 則自然及物, 而道亦行於彼矣.

‘大我的 실현’이나 싱어가 제안하는 ‘영역 확장’(Expanding Circle)<sup>18)</sup>과 유사해 보인다. 주자 역시 모든 생명체 전체로 윤리적 의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자에 따르면 모든 생명의 가치는 이미 天地의 권위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이는 모든 존재의 생명이 동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생명에 대한 관심을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고 다른 존재를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요컨대 모든 생명체는 천지에 의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았으므로, 천지의 의지에 따르고자 하는 인간은 마땅히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의 생각은 내스나 싱어와는 다르다. 주자는 원리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구분하여 생명체에 대한 대우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즉 주자가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했던 것은 천지의 생명의지라는 원리적 측면에서 언표한 것일 뿐이고, 그 구체적 실천의 측면에서는 차등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자는 강조한다.

이점을 밝히기 위해 程子の 관련 발언에 대해 주자가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자는 인간의 參贊이란 단지 誠의 태도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천지를 돕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19)</sup> 즉 참찬화육이란 眞實无妄한 태도로 천지의 마음에 순응할 뿐이지 인간의 작위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자의 이 말에는, 천지가 모든 존재의 생명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존재를 공평무사하게 화육하는 것과 같이, 인간도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자는 정자의 생각에 반대한다.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천지의 마음으로 천지

18) 싱어에 따르면, 인간은 생물학적 토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호혜와 이타의 영역을 무한정 확장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의 快苦에까지 관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Peter Singer, 김성한 역, 《사회생물학과 윤리 The Expanding Circle》, 인간사랑, 1999, 171-236쪽 참조.)

19) 《二程遺書》11-183 至誠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贊者. 參贊之義,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之謂也. 非謂贊助, 只有一箇誠何助之有.

의 조화를 돕는 것이니, 여기에서는 하늘과 성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分殊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늘이 하는 일에는 사람이 미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 또한 천지가 미칠 수 없는 게 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수처의 차별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면서도 그 이치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정자의 말에는 理一에 대해 밝힌 것이 많았지만 분수에 대한 언급은 적었던 것이다. 그 강조(抑揚)의 語勢상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잘못된 점 또한 없지 않다. 정자의 말씀 중 오직 “하나의 이치이긴 하지만 하늘과 사람이 하는 일에 각기 分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완벽하여 잘못됨이 없다. 그러나 읽는 이들이 이점을 잘 모르고 있다.<sup>20)</sup>

주자는 천지와 성인의 역할이 궁극적인 이치(理一)에서 같지만, 구체적인 현실(分殊)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천지는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인간도 천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sup>21)</sup> 분수처에서는 다양한 존재자들이 저마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각기 다른 방식에 맞게 존재자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의 생명의지처럼 모든 존재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존재를 차등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등적 배려만이 모든 생명체들의 삶을 최적의 상태로 이끄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침해받지 않고 자기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배려한다면, 이것이 생명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 《中庸或問》, 其所以代天而理物者, 乃以天地之心而贊天地之化, 尤不見其有彼此之間也. 若以其分言之, 則天之所爲, 固非人之所及, 而人之所爲, 又有天地之所不及者, 其事固不同也. 但分殊之狀人莫不知, 而理之一致多或未察, 故程子之言, 發明理一之義多而及於分殊者少. 蓋抑揚之勢不得不然. 然亦不無少失其平矣. 唯其所謂只是一理而天人所爲各自有分, 乃爲全備而不偏, 而讀者亦莫之省也.

21) 주자는 인간의 역할이 천지의 생명의지를 분수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문명에 대하여 주자가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朱子語類》 64:55 “贊天地之化育.” 人在天地中間, 雖只是一理, 然天人所爲, 各自有分, 人做得底, 卻有天做得不得底. 如天能生物, 而耕種必用人; 水能潤物, 而灌溉必用人; 火能燒物, 而薪爨必用人. 裁成輔相, 須是人做, 非贊助而何? 程先生言: “參贊之義, 非謂贊助.” 此說非是.) 물론 기술문명은 천지의 생명의지를 창조한다는 목적 하에서 긍정되는 것이다.

聖賢이 세상에 나오셔서 만물을 다스릴 때에는 각자의 본성에 맞게 이끌어주셨다. 그래서 昆蟲草木중 어느 하나도 제 본성에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인간은 적절한 때를 지켜 그것들을 얻었고 절도를 지켜 사용했다. 봄에 생명체가 태어나는 시점에는 어린 새끼를 잡지 않았고 새둥지를 얻지 않았으며 벉속 태아를 죽이지 않았다. 초목이 다 진 다음 산에 들어가 나무를 했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 다음 虞人들이 澤梁에 들어가게 했으며, 이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 다음 田獵하게 했다. 이와 같이 성인이 만물들이 제각각 최적의 삶을 살 수 있게(各得其所)한 것은 천지 본연의 生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2)</sup>

주자에 따르면, 천지의 생명의지를 만물들에게 실현시켜주기 위한 방법은 각자의 본성에 맞게 최적의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에게 획일적 대우를 하는 것은 그것들의 생명활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 각자에게 적절한 삶을 마련해줌으로써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各得其所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주자 생명윤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의의 원리(principle of justice)에 입각한 생명윤리로 평가될 수 있다. 정의는 개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suum cuique)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동물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당연히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각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차별적 배려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존귀함이 평등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대우하는 방식 역시 동일할 수는 없다. 무차별적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 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우가 필요한 것이다.<sup>23)</sup> 그것이 모두의 삶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자가 지향한 생명윤리의 목표

22) 《朱子語類》114:38, 聖賢出來撫臨萬物, 各因其性而導之. 如昆蟲草木, 未嘗不順其性, 如取之以時, 用之有節: 當春生時不斃天, 不覆巢, 不殺胎; 草木零落, 然後入山林: 獮祭魚, 然後虞人入澤梁: 豺祭獸, 然後田獵. 所以能使萬物各得其所者, 惟是先知得天地本來生生之意.”

23) 이점은 김남준의 생각을 활용한 것이다. 김남준의 <식물윤리학의 원리>(<환경철학> 제12권, 한국환경철학회, 2011), 25-26쪽 참조할 것.

는 이런 의미를 뚜렷이 함축하고 있다. 各得其所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다시 부연하자면, 이러한 차등적 배려의 목적은 모든 생명체의 삶을 차별 없이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차등적 배려는 천지의 궁극적 생명 의지를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자는 결론적으로 모든 존재자를 '동등하면서도 차등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등한 대우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지를 존중하는 것이고 차별적 대우는 각자의 삶의 양식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다. 주자에게 있어 이 두 가지 태도는 모순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4. 생명에 대한 관찰과 배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생명체들을 各得其所의 상태로 이끌 수 있을까? 내스라면 동일시(identification)의 실천을 제시할 것이다. 동일시란 한 대상에 대해 강한 공감(empathy)을 느끼고 그 대상을 자기 자신과 한 몸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감정을 대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스의 동일시는 객관적 규범성을 갖춘 것이라기보다 감성적이고 미학적인 행위이다.<sup>24)</sup> 한편 싱어라면 대상의 고통을 추측하고 계산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다분히 감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고통 지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실천 방안과 동물 해방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sup>25)</sup>

24) 안옥선, 앞의 글, 231-232쪽.

25) 김명식, 앞의 글, 22-23쪽 참조.

주자의 방식은 이들과 다르다. 주자는 모든 생명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면밀히 탐구하고 그것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格物이 생명체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생태학적 실천 방안이라는 것이다.

성인은 ‘모든 존재의 이치를 궁구하고 저마다의 본성을 다하게 하여 命에 이르게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 그 삶의 이치를 모두 궁극에까지 탐구하여 존재들마다 각각 제 살 곳을 얻도록 배려하고 一事一物이라도 반드시 최적의 상태를 얻을 수 있게 안배한다. 사물이 없으면 그것의 이치도 없는 것이다. 사물이 있으면 성인은 그 이치를 완전히 실현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른바 “오직 지극한 誠만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니, 이에 천지와 더불어 셋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그것이다.<sup>26)</sup>

옛 성인은 자연 만물에 대해 신중하게 배려(愛物)하였기에, 나무 한 그루 베는 것에도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성인이 조금이라도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고 그 혜택을 입지 않는 사물이 없었다. 이는 성인이 격물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sup>27)</sup>

생명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생명체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그 생명체에게 적합한 배려를 할 수 있으며 생명체가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자는 성인의 행위란 바로 철두철미하게 격물을 실천하여 모든 만물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sup>28)</sup> 그것이 바로 參贊化育의 실현이라고 강조한다.<sup>29)</sup>

26) 《朱子語類》18:28 聖人所以窮理盡性而至於命，凡世間所有之物，莫不窮極其理，所以處置得物物各得其所，無一事一物不得其宜。除是無此物，方無此理；既有此物，聖人無有不盡其理者。所謂惟至誠贊天地之化育，則可與天地參者也。”

27) 《朱子語類》15:18 古人愛物，而伐木亦有時，無一些子不到處，無一物不被其澤。蓋緣是格物得盡，所以如此。

28) 《朱子語類》62:66 問：“集解中以‘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通人物而言，‘修道之謂教’，是專就人事上言否？”曰：“道理固是如此。然‘修道之謂教’，就物上亦有箇品節。先生所以咸若草木鳥獸，使庶類蕃殖，如周禮掌獸·掌山澤各有官，如周公驅虎豹犀象龍蛇，如草木零落然後入山林，昆蟲未蟄不以火田之類，各有箇品節，使萬物各得其所，亦所謂教也。”

29) 《朱子語類》18:28 “凡世間所有之物，莫不窮極其理，所以處置得物物各得其所，無一事一物



우리가 자연 사물의 생존 방식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친절히 보살펴줄 때라야 참찬화육은 가능하다고 주자는 주장하고 있다. 주자의 격물설에는 생태계 존재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깔려 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아무리 상대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해도 상대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주자의 격물은 생태계의 존재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선 그들의 생태 원리와 생존 방식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연민과 공감이가 중요한 동력 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적합한 배려를 할 수가 없다. 생태계 존재들의 생존 방식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우하는 것이 그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이 점은 웨스턴(A. Weston)의 ‘환경 에티켓’(environmental etiquette)을 떠올리게 한다. 웨스턴은, 내스의 생태주의가 에코 파시즘(eco-fascism)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존재가 저마다 우주의 중심이라는 ‘다중심적 세계관’<sup>30)</sup>(multicentrism)을 세운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다른 중심인 모든 존재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합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인간이 자연환경을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이며, 이때 인간은 다른 종과 의사소통하면서 우주의 위대한 생명활동에 공동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sup>31)</sup> 주자와 웨스턴은 공히 자연 존재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관찰, 배려와 소통,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여 살게 해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생태윤리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태계 모든 존재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줄 때 궁극적으로 天地의 生物之心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나

---

不得其宜。除是無此物。方無此理；既有此物。聖人無有不盡其理者。所謂惟至誠贊天地之化育。則可與天地參者也。”

30) 심층생태주의가 전체 생명이라는 단일중심적 세계관 혹은 공(共)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한다면, 웨스턴은 생태계 존재들 모두를 우주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그들과 평등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nthony Weston, “Multicentrism: A Manifesto” *Environmental Ethics* Vol.26, Spring, 2004, 30-36쪽.

31) *Ibid.*, 37-38쪽.

자신의 본성(생명의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을 적절히 이루어주는 것은 곧 나의 본성을 이루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자는 생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와 실질적인 배려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으로 생명체들을 융합하고 생명체들 안으로 우리를 용해하는(合內外) 궁극의 일체감(天人合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sup>32)</sup>

## 5. 결론

우리는 심층생태주의와 동물해방론의 생명평등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메시지—즉 모든 생명은 그 가치가 동등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과연 이들이 제안하는 윤리적 실천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상식에 맞는 차등적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주자의 철학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우선 주자의 불교 비판에 근거하여 생명평등주의가 인륜적 친소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리일분수에 대한 윤리학적 해석을 토대로 차등적 배려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2. 장) 나아가 參贊化育에 관한 주자의 설명을 분석하면서 주자가 誠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관심과 배려의 영역을 모든 만물의 삶에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32) 《朱子語類》15:67 問：“格物須合內外始得？”曰：“他內外未嘗不合。自家知得物之理如此，則因其理之自然而應之，便見合內外之理。目前事事物物，皆有至理。如一草一木，一禽一獸，皆有理。草木春生秋殺，好生惡死。‘仲夏斬陽木，仲冬斬陰木’，皆是順陰陽道理。〈砥錄作〉皆是自然底道理。〉自家知得萬物均氣同體，‘見生不忍見死，聞聲不忍食肉，非其時不伐一木，不殺一獸，不殺胎，不夭夭，不覆巢’，此便是合內外之理。”

확인하였다. 이것은 주자철학이 생태윤리로서 재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천지의 생명의지와 인간의 윤리적 실천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동등하면서도 차등적인 대우의 논리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주자의 생명윤리에서 차등적 배려의 목적이 各得其所, 즉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 장)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체에 대한 배려의 실천 방안으로 格物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것의 생명윤리적 의의를 탐색해볼 수 있었다.(4. 장)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명체에 대한 차등적 배려는 정당할 뿐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주자가 제시하는 차등적 배려는 혈연적 종적 이기주의와 편당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각자의 삶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궁극적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자는 현대적 문제의식을 가진 생태윤리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상으로부터 현대의 생태윤리와 동물윤리 담론에 유용한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參考文獻>

程顥 程頤, 《二程文集》, 中華書局, 1997.

楊時, 《龜山集》, 中華書局, 2000.

朱熹, 《朱熹集》, 四川教育出版社, 1998.

朱熹,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7.

김명식, 《환경, 생명, 심의민주주의》, 범양사, 2002.

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7.

김남준, <식물윤리학의 원리>, 《환경철학》제12권, 한국환경철학회, 2011.

김명식, <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 《환경철학》제15권, 한국환경철학회, 2013.

김세정, <서구의 환경철학과 왕양명의 한뫼 철학>, 《양명학》제4집, 한국양명학회, 2000.

안옥선, <생태적 삶의 태도로서 '동일시'와 '동체자비'>, 《불교와 문화》제1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7.

이승환, <주자의 공동체적 생태윤리>, 《간재학총서》제5집, 2006.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 Press, 1989.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Joseph, R. Desjardin, *Environmental Ethics,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4th Edition, Thomson Wadsworth, 2006.

Murray Bookchin, 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 솔출판사, 1997.

Peter Singer, 김성한 역, 《사회생물학과 윤리》(The Expanding Circle), 인간사랑, 1999.

\_\_\_\_\_, 김성동 황경식 옮김,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3.

Anthony Weston, "Multicentrism: A Manifesto" *Environmental Ethics* Vol.26, Spring, 2004.

Arne Naess, "Equality, Sameness, and Rights", edited by George Sessions,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1995.

\_\_\_\_\_,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edited by Michael E. Zimmerman,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 to Radical Ec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David Barnhill, "Relational Holism: Huayan Buddhism and Deep Ecology" edited by David Barnhill & Roger Gottlieb, *Deep Ecology and World Religion*, New York: SUNY Press, 2002.

<ABSTRACT>

www.kci.go.kr

This article attempts to criticize the opinion of "treat all sentient beings

equivalently” asserted by A. Naess & P. Singer, and to certify the justification of discriminative treatment suggested by Zhu xi. This paper, first, criticizes A. Naess & P. Singer’s point of view, and argues that all sentient beings are different based on the theory of Li-Yi-Fen-Shu(理一分殊). Second, this article attempts to recover the status of human beings that is extinguished in dialogue of deep ecology through Zhu xi’s Explanation on Can-Zan-Hua-Yu(參贊化育), and to illuminate significance of Cheng(誠) as basic behavior of Can-Zan-Hua-Yu. Last,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the practical methods of ecology from re-construing Zhu xi’s cultivation theory of Ge-Wu(格物).

Key Words: Zhu xi, Discriminative Treatment, *Can-Zan-Hua-Yu*,  
*Li-Yi-Fen-Shu*, *Ge-Wu*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12. 31.	2014. 1. 28.	2014. 2. 21.	2014. 2. 24.	2014. 2. 28.